

##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쇄신의 실천\*

- 생산적 실용적 인문학을 위하여 -

송효섭\*\*

<차 례>

1. 위기의 고전문학
2. 고전문학에 대해 각인된 기억들
3. 고전문학, 그 이론과 담론의 쇄신
4. 실용적 인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 연구를 위하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늘날 고전문학 연구가 맞이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적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고전문학에 각인된 기억들이 고전문학에 대한 신화를 만들고, 그것이 고전문학 연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오늘날 생산적이고 실용적 인문학에 필요한 담론적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나친 실증주의적 과소해석 또는 지나친 형이상학적 과대해석이 고전문학을 하나의 사실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의 관념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이론은 이러한 사실과 관념을 관계짓고 매개하는 담론이며, 다양한 사실이나 관념만큼이나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고전문학은 무한한 담론의 확충을 기할 수 있으며, 오늘날 보편적 인문학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주제어** 고전문학, 실증주의적 과소해석, 형이상학적 과대해석, 이론, 담론

\* 이 논문은 제40회 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에서 “고전문학의 신화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강대 교수

## 1. 위기의 고전문학

필자는 얼마 전 현금의 국문학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담론의 쇄신을 통해 탈형이상학적 지평을 열어젖히는 일이야말로 국문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1)</sup> 이 글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국문학이라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고전문학’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으로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문제의 성격은 더욱 예각화되어 드러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고전문학’이라는 하위 분류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 또한 보다 첨예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문학에서 ‘고전문학’은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기서 국문학이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데, 그것은 홍길동전이나 윤선도의 시조처럼 문학 작품이나 텍스트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의 한 영역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쓰이는 국문학 혹은 고전문학이라는 개념에는 이러한 상이한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함의된다. 이는 국문학 연구의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된다. 대상에 대한 관점과는 무관하게 연구 대상 자체의 영역이 곧 연구 영역으로 간주되는 대상 중심의 오랜 실증주의적 관행이 국문학 연구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문학 연구를 분할하는 ‘고전/현대’라는 양항대립의 기제가 고착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국문학이 갖는 본질주의가 국문학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는데, 만일 국문학에서 이와 같이 강력한 분류체계 안의 세분화된 개념들에 본질주의가 작용한다면,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

1) 송효섭, 「국문학 연구의 탈형이상학적 지평」, 『배달말』39, 배달말학회, 2006.12, pp.241-261.

인문학이라는 넓은 개념을 통해 우리가 자유롭게 다양한 학문들 간의 개방적인 교류를 체험할 수 있다면, 국문학이라는 좁은 개념으로는 그 체험의 영역이 좁아질 것이고, 이를 ‘고전문학’으로 좁힌다면 그 체험의 영역은 더욱 더 좁아질 것이다. 여기에 고전산문이니 고전시가니 하는 개념으로까지 좁혀 학문적 시각을 갖는다면, 이제는 더 말할 나위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다만 학문의 영역이 좁아지고 그럼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마도 30여 년 전쯤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눈 안 팔고 오직 한 길만을 가는 선비의 이미지가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각인되어, 이리저리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영역을 평생 연구하는 것이 대단한 미덕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지금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인문학의 화두로 삼고 있다. 앞서 말한 외길을 가는 지사적인 선비의 이미지는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 왜 이러한 열린 학문의 장으로 모두 나와야 하고, 거기에서 혼성의 혹은 잡종의 담론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다른 혼성의 혹은 잡종의 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온 것이다. 학문의 위기란 다름 아닌 그 학문이 더 이상 실용적이 되지 못하는 데 온다. 학문으로 먹고 사는 학문 종사자에게만 필요할 뿐,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학문은 이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고립된 담론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지금의 국문학 특히 고전문학의 담론들이 바로 그런 담론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그런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인문학의 위기도 넓게 보면, 고전문학의 위기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 그 위기는 먼저 그 영역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이어갈 후

속세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문학자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위기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문학의 여러 학과들이 학생이 없어서 폐과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국문학은 형편이 낫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한 때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는 대학마다 설치되는 필수적인 학과처럼 여겨졌지만, 현재는 국문학과 대신 문예창작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와 같은 학과를 설치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국문학 가운데서도 이른바 고전문학의 영역은 위기가 더 심각하다. 고전문학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대학원에서도 현대문학 전공보다 학생 수가 적은 것이 보통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한문 텍스트가 많은 고전문학의 성격상 한문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한문에 대한 기본 교육이 고등학교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쓰이지도 않는 글을 문헌을 읽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실용적인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한문 교육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혹은 요즘 실시되는 대학의 학부제에 그 탓을 돌리기도 한다. 학부제 때문에 대학에서 깊이 있는 전공 공부를 시킬 수 없고, 그러니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줄고 더구나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여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학부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마냥 제도 탓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고전문학이 대면한 위기의 한 부수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이런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문 자체에서 오는 것이다. '고전문학'이라는 학문이 학문으로서 갖는 한계가 다양한 가치가 실현되는 오늘날 보다 침체하게 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 내지는 무관심이다. '고전문학'에 대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 방안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문 자체 즉 학문이 생산하는 담론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학문적 담론의 쇄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글은 현재의 고전문학 담론이 갖는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고전문학에 대해 각인된 기억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언어가 담론이 될 수 있다면, 고전문학 역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담론으로서의 언어는 단지 도구로서의 언어가 아니다. 언어는 도구이면서 그 자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제도화되고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전문학'이 단지 고전문학이라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문 내지는 교육의 여러 제도들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담론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고전문학은 고전문학 작품이면서 학문이고 또 그것은 대학에서 설강되는 과목이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분류 항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학습목표가 만들어지고 때에 따라 대중들의 독서나 출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으로써, 고전문학이라는 하나의 개념은 담론의 전체 망 안에서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 굳이 우리가 '담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개념이든 이러한 전체 망 안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그것이 수행하는 실천적 역할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고전문학’은 다의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는 이 말이 담론체계 안에서 갖는 위상이 상대적임을 말한다. 이러한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개념화시킬 때, 그것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말과 말, 개념과 개념 간의 경계를 구획하고, 그 구획을 바탕으로 제도와 위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학문의 한 분류항으로서의 고전문학이 사회적, 교육적, 이념적 의미를 구현하고, 실제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개념 역시 담론화되기 때문이다.

이제 ‘고전문학’이라는 말이 갖는 함의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고전문학이라는 말에는 위계적 분류가 내포되어 있다. 고전문학이란 ‘문학’이라는 유개념을 ‘고전’이란 종개념으로 특수화시켜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문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먼저 문학 아닌 것과 문학을 구분하는 사유를 한다. 문학이라는 개념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일어난 시기를 상정해볼 수 있고,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의미장의 분화가 유지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문학이란 말은 근대 이후에 한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이는 서구의 literature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구에서도 literature라는 말이 오늘날과 같은 예술 언어, 혹은 상상적 문학, 아름다운 문 *belles-lettres* 와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것은 그리 오래지 않는다.<sup>2)</sup> 이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문학연구 *literary study* 의 역사 역시 200년을 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되는 의미의 분화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담론에서도 역시 문학이라는 개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문의 개념이 쓰였는데, 이는 문이 갖는 어떤 특정한 목적-가령 예술적 목적-이 강조되기 보다는, 도를 담는 그릇과 같은 보다

---

2) 서구에서의 literature의 개념에 대해서는 René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Ltd., 1970, pp.20-23 참조.

보편적인 목적이 강조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 이후 문은 의미의 분화를 통해 문학이라는 좁은 개념을 낳게 된 것이다. 우리가 문학이라는 개념을 쓰는 한 거기에는 일종의 문학중심주의적 사유가 깔려있다. 따라서 당연히 글로 쓰여진 것 가운데, 문학인 것과 문학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된다.

한국에서 문학 연구 역시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출발한다. 문학은 늘 문학 작품이라는 말을 수반하는데, 이는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의 구분이 작품인 것과 작품 아닌 것의 구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말한다. 작품은 당연히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작품이라는 개념은 작가라는 개념을 또한 수반한다. 뛰어난 작품이 있듯이 뛰어난 작가가 있다. 이러한 것을 선별하는 일은 한국 초창기 국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되었다. 한국 초창기 문학 연구는 주로 문학사 기술로 이루어지는데, 문학사 기술에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떤 작품을 혹은 어떤 작가를 문학사에 편입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는 문학사 기술이라는 문학 연구의 한 분야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특정 작품을 정전화하면서, 수많은 여타 텍스트들을 배제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한국문학 연구 초창기에 문학사 기술이 유행했고, 오늘날도 문학사를 기술하는 것이 문학 연구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는 국문학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학을 문학 아닌 것과 구분하여 정립한 문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전문학이라는 개념이 생성된다. 고전문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국의 고전문학 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한 것을 192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3)</sup> 이 시기는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이후이므로, 고전문학이라는 말에 이미 좁은 의미의 문학의 개념이 함의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 이전

3) 정병욱, “고전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83, p.543.

문이라는 넓은 개념에 포괄되었던 것 가운데, 문학이라는 근대적 개념 안에 포착되는 것을 가려내어 '고전문학'이라는 근대적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전문학 연구의 방법 역시 작가론이나 장르론과 같은 신문학 연구의 방법을 모방, 전유하게 된다.<sup>4)</sup> 고전문학이라는 말이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이 근대적 시선이 근대 이전을 바라본 결과로서 생겨났다면, 오늘날 고전문학 역시 철저하게 오늘날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전문학에 관한 한, 이러한 명제가 분명하게 실천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자주 목도된다는 점이다.

'태생적 한계'라는 말을 쓴 것은, 고전문학이라는 개념이 그간 축적하고 각인한 문화적 기억이 태생적일 만큼 뿌리 깊고 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고전문학이라는 것에 대해 갖는 일반적 이미지 같은 것과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낡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좀 더 부정적으로는 고집 세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답답한 학구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는 그냥 피상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것이다. 결국 이런 이미지가 대중들로 하여금 고전문학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고전'이란 어떤 의미장의 분화를 통해 생성된 것일까?

대체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함의를 갖는 고전의 개념이다. 이때 고전은 '근대' 혹은 '현대'와 같은 개념과 대립적인 위상을 갖는다. 오늘날 국문학과에서 전공을 분할할 때, 고전문학에 대척하여 현대문학이라는 말을 쓰니, 여기서의 일단 '현대'라는 말을 써보자. 국문학에서 '고전/현대'의 양항대립은 뿌리 깊은 것이고, 이러한 분할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는 인식은 꽤

---

4) 김정경, "고전문학의 지식체계 형성에 대한 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4, pp.103-115.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리고 엄연하게 살아 있어, 국문학자들이 자신을 이 양향의 어느 한 쪽에 위치시켜야 비로소 국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고전과 현대의 시대적 구분은 당연히 문학사 기술로부터 나온다. 문학사에서 시대구분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전과 현대를 가르는 시점과 기준은 많은 논란을 낳는다. 시대구분에 대한 관점을 명명론적 관점과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면, 고전과 현대가 지속적인 흐름에 임의로 덧붙여진 명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은 명명론적 관점이다.<sup>5)</sup> 이 경우, 고전이나 현대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 흐름 안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여 명명을 위한 단절을 수행하는가이다. 이때 그 지점의 선택은 문학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문학 외적인 다른 기준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것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의미 부여도 허용하지 않는 실증주의적 관점과 직결된다. 이른바 자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누구든 동일한 기반에서 받아들여지는 고정불변의 실체다. 바로 이러한 고정불변한 것으로 검증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국문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한국 인문학 초창기를 지배한 아카데미즘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실증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상력이나 감수성 혹은 주관성 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학문이 나아가야 할 지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해석학을 하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어떠한 형이상학도 배제한 채, 증명될 수 있는 사실로 고전문학을 간주한다면, 당연히 고전과 현대의 구분도 명명론적 구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것일 뿐,

5) René Wellek & Austin Warren, *op.cit.*, p.262.

그러기에 ‘고전’이란 이름이 붙여졌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 것이다. 어차피 논란의 여지없이 만들어진 명명이기에 그것은 하나의 영토로 고착되기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관점은 고전과 현대의 구분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쟁을 차단함으로써, 국문학 연구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분할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는 고전문학에 대한 전혀 상반된 또 다른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앞서의 실증주의와는 반대되는 관점, 즉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온다. 형이상학적 관념에 가치가 포함된다면, 고전문학에는 전혀 상반되고 그럼으로써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투사된다. 극단적으로 부정적 가치가 투사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긍정적 가치가 투사된다.<sup>6)</sup> 앞서 근대적 시선으로 본 고전과는 달리 고전문학에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관점 또한 국문학 담론에서는 매우 주도적인 흐름으로 이어온다. 여기서 고전은 단지 시대적 함의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교양적 함의를 갖는다. 이른바 서구에서 문학연구를 시작하면서, 정전을 확정하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데,<sup>7)</sup> 이는 한국의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서구의 휴머니즘 문학연구는 산업화에 의해 상실되어가는 인간의 교양적 가치를 문학에서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시민성이나 의식의 고양에 음악, 예술, 문학과 같은 고차원의 형식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낭만적 미학에 근거를 둔다.<sup>8)</sup> 그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리비스에서 예술적 이상의 구축은 브리

---

6)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버려야 할 인습이라고 주장한 이광수와 우리 것을 과도하게 신화화시키려 한 최남선의 담론은 결국 우리 것에 대한 콤플렉스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7) 이에 대해서는 송무, “고전과 이념” 『시학과 언어학 3, 시학과언어학회, 2002.6. pp.16-42를 참조할 수 있다.

8) Jeff Lewis, *Cultural Studies: The Basics*, Sage Publications, 2002, p.110.

타니아의 가장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국가주의적 이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sup>9)</sup> 이를 통해 바로 이러한 이상을 가장 잘 구축한 텍스트의 선별, 즉 정전의 구축이 이루어 지는데, 고전에 대해 형이상학적 함의가 덧붙여질 때, 이는 이러한 정전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 문학연구의 초창기의 경향은 문학연구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문학이 갖는 본질을 규정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낭만주의와 국가주의적 함의를 갖는 고전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창기 국문학 연구에서 연구의 주된 대상은 주로 고전이었으며, 고전 가운데서도 정전이 될 만한 진짜 고전을 가려내는 일이 주된 과제였다. 이를 위한 선별 기준은 실상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담론들이 생산되었다. 선별을 하기 위해 선별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선별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고전에 관하여 만들어진 담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옛 작품이 고전문학이 되자면 적어도 거기에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 안 될 일이다. 즉 그 작품에는 이미 있어 온 바의 과거의 전통성이 있고, 또 후세문학의 규범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sup>10)</sup>

그 다음으로 현대 한국문학을 산출케 한 그 모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모체가 있으면 반드시 유전이 있고 따라서 혈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선진 제국가의 문학에는 각각 그 모체로서의

9) Ibid., p.118.

10) 조윤계, 『국문학개설』, 탐구당, 1984, p.45.

고전문학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곳에서 말하는 고전이란 것은 다만 옛날의 작품의 일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명작 걸작을 뜻하는 것이다. 즉 쇠약하여가는 유아의 생명을 날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것과 같이 후세의 작품에 생명과 정신의 발전을 도우며 때로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는 그 고전의 위대한 정신과 계시에서 재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작을 뜻하는 것이다.<sup>11)</sup>

이와 같은 고전에 대한 담론에서 고전을 특징짓는 용어로, 역사성, 전통성, 규범, 모체, 걸작과 같은 낱말이 쓰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텍스트가 갖는 언어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본질 혹은 형이상학적 관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고전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낭만적 신화로 착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고전이 갖는 때 묻지 않은 순수성에 대한 이념, 그리하여 민족이나 국가의 기원 혹은 문화나 심성의 기원을 잘 드러내는 것이 다름 아닌 고전이라는 고전중심주의적인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모체가 있어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계보론적이고 인과론적인 해석은 실제로 오늘날 국문학 연구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다 유연한 해석학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령 원형이니 전상이니 기층이니 하는 말들을 통해 고전문학이 갖는 특징을 강조하는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각기 다른 담론을 생산해내는 일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국문학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것은 고전을 고전 아닌 것과 대립시키고, 그 중 어느 한 항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데, 문제는 그러

---

11)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2”, 『사상계』 58, 1958.5., p.366.

한 과정에서 해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과소해석과 과대해석이라는 모순적 경향을 함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고전을 고전 아닌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는 다시 말해 고전이 다른 모든 담론을 타자화시킴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고전문학의 이념이 초래한 고전문학의 위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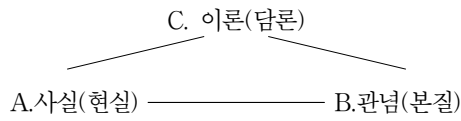
### 3. 고전문학, 그 이론과 담론의 쇄신

학문으로서의 고전문학은 그것이 학문인 이상,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갖게 된다. 학문의 이념과 방법론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방법론이 옳은가 그른가 혹은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가 옳은가 그른가가 결국 학문이 갖는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인문학의 경우 그 판별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인문학에서 진리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은 인문학 특유의 개방성과 인간 상호간의 존중이라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가치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인문학에서 모든 대화는 열려 있으며, 그로부터 세워지는 가설은 언제나 확정 불가능한 것이다. 인문학이란 확정된 진리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담론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말한 고전문학은 어떤 ‘태생적’ 한계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sup>12)</sup> 이는 앞서 말한 과소해석과 과대해석의

12) 국문학 연구가 고전문학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때, 고전문학의 태생적 한계는

모순적 경향에서 비롯된다. 이를 다음 그림을 통해 설명해보기로 한다.



A는 현실 자체다. 문학연구에서 말한다면, 과거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텍스트이다. 이것을 사실 그 자체로 보고 기술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형이상학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고전문학 연구 초창기에 유행했던 실증주의는 바로 A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과소 해석의 경향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언어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 일 뿐이며, 따라서 스스로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말해, 이러한 극단적인 실증주의는 학문의 영역 이전이거나 밖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실증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자료에 접근하는 순간, 연구자는 어떤 직관을 갖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머리에 어떤 관념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B의 영역이다. 관념 즉 본질은 인간의 인식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이 있으므로, 수많은 관념이나 본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고전문학에서 뛰어난 작품 즉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후세 문학의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도 B에서이다. 그러나 고전이라는 범주를 유표화하고 고전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려 할 때, 세상의 수많은 관념으로부터의 선별 또한 필요하다. 수많은 옛 문헌 가운데 왜 춘향전이 고전이 되는가 혹은 같은 춘향전 가운데 어떤 판본이

---

곧 국문학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전문학은 바로 이러한 기원성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더욱 예각화되어 드러난다.

가장 선본인가와 같은 판단이 만들어질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학문에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과 논쟁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하나를 부정하고 다른 하나를 긍정하는 식의 절대 명제를 세우는 방향이 아닌, 하나의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미장이 됨으로써 담론의 확산과 창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착된 사실이나 본질적인 관념들을 언어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그것을 담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의 그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이다. 사실과 관념은 바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럴 경우, 그것은 자의적이 된다. 사실은 사실의 전체 맥락에서 파악되고 관념 역시 그것을 둘러싼 다른 관념의 맥락에서 파악된다. 바로 이러한 파악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론화된다. 그렇다면, C는 A와 B 사이에서 끊임없이 매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와 B가 유동적인 현실의 삶에서 부유하는 것이라 할 때, 그것을 연결하는 C 역시 무한히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학문이라 하는 것은 C의 영역인데, 이러한 영역에서 담론이 끊임없이 쇄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유동성 때문이다.

고전문학에 관한 한, 이러한 담론의 쇄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앞서 말한 A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과소해석과 B를 강조하는 형이상학적 과대해석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문과 관련된 인습이나 제도와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흔히 말하는 아카데미즘의 엄격함은 A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학문에서의 권위주의 다시 말해 전근대적인 학문적 전문성에 대한 신화(가령, ‘대가’나 ‘석학’이니 하는 말이 함의한)는 검증되지 않은 B에 초월적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습 말고도 담론적인 문제에서 고전문학 연구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가령, 어

면 새로운 사유가 투입한다 하더라도, 틀 자체를 바꾸는 진보성보다는 틀 안에 안주하는 보수성을 드러낸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문학 연구의 한 흐름 가운데, 장르론이라는 것이 있다. 장르란 문학을 분류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류는 근대 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의 산물이다. 생물학에서 생물들을 분류하고 계통을 밝히는 작업을 문학에서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문학에서 그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 분류는 문학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될까? 이러한 문제는 고전문학 장르론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물음이다. 그러나 고전문학에서 장르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대개 장르를 ‘규정’한다는 논문은 어떤 텍스트를 어떤 분류항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텍스트가 소설인지 아닌지, 신화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곧 장르론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위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텍스트가 A로 존재한다. 장르에 대한 관념이 B로 존재한다. A로 B를 설명하거나 B로 A를 설명한다. 그 회로는 근본적으로 닫혀 있다. 이 세상에 A와 B를 연결하는 회로는 하나일 뿐이며, 그것이 진리라고 각각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 C의 매개가 개입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C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유동성과 가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 간의 대화와 조정이 담론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C의 영역에서 장르론의 논의는 늘 장르론의 해체를 함의한다. A와 B 간의 대화적 관계에서 고착된 장르론 존재하기 어려우며, 늘 장르의 새로운 생성 가능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최근 구조주의가 고전문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국문학자가 쓴 구조주의 소개 가운데, 소쉬르를 받아들여 ‘구조에는 계열체적



*paradigmatic* 구조가 있고 통합체적 *syntagmatic* 구조가 있다라고 기술하는 것을 보았다. 그야말로 분류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소개가 소쉬르가 말한 구조의 개념을 제대로 소개한 것일 수 없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텍스트를 계열체적 구조와 통합체적 구조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을 보았다. 엄격히 말한다면 통합체는 텍스트 그 자체이지 구조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계열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가? 앞서 장르론의 경우처럼 현상을 분류적인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비록 구조라는 말을 빌어 썼다 하더라도, B의 영역으로 귀속시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잘못된 형이상학적 아집 때문이다. 흔히 ‘-의 구조와 의미’와 같은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구조에 관해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에 귀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다시 말해 B로의 귀속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그것은 곧 앞서 말한 텍스트에 대한 과대 해석을 낳으며, 따라서 텍스트를 하나의 의미로 귀속시키는 환원론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A와 B를 매개하는 이론이 개입해야만, 대화를 통한 담론의 생산이 가능해지며, 그것이 곧 역동적인 삶과 깊이 연루된 인문학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학문에서 이론의 역할은 학문을 생산적인 실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고전문학에서 이론 결핍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는 고전문학 연구의 생산성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고전문학 연구가 소통되지 않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논문 쓰기의 관행에 있다. 대개 논문은 하나의 가설을 절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진다. 반드시 결론을 맺어야 하고, 그 결론은 분명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늘 존재한다. 가령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논문을 시작했다면, 결론에 주제는 ‘무엇이다’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나와야 좋은 논문으로 평가 받는다. 이런 경우, 논문 전체의 전개 과정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분명해 보이는 이러한 논문을 읽을 때, 그러한 논문이 제시하는 주제를 과연 독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주제가 있다는 논문을 씌으로써, 내가 방금 읽은 논문을 부정해야 할까? 이 경우, 과연 궁극적으로 옳은 주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던져보자. 결론이 꼭 있어야 할까? 충실한 텍스트 읽기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 독서를 기억의 축적이라 할 때, 그것은 어떤 절대적 도그마로 굳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 축적한 기억은 새로운 텍스트 읽기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고전문학을 비롯한 모든 문학, 아니 문학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 읽기의 핵심이 있다. 고전문학에 대한 논문 쓰기 역시 마찬가지다. 논문의 1/10도 안 되는 결론에 봉사하기 위해 나머지 부분이 희생되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의 모든 과정이 담론화되어 드러나는 그런 글쓰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고전문학 연구의 오랜 관행은 고전문학 교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sup>13)</sup>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최근 필자가 접한 문학 지습서에 보니, 삼국유사 혁거세 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연대 : 신라 박혁거세

갈래 : 한역 건국 신화

성격 : 신이적, 초월적

표현 : 하늘 중심 사상에 의한 박혁거세의 치적과 죽음을 나타냄.

---

13) 물론 연구의 관행이 전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교육의 여러 주체들과 제도들과 같은 여러 뒤얽힌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관행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식을 생산하는 학자들이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지식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된다면, 지식의 전수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학자가 해야 할 몫이고, 특히 인문학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은 것이다.

특징 : ① 태양숭배사상을 나타냄 ② 평화로운 남방계 신화의 특징을 나타냄 ③ 난생 설화의 성격을 나타냄

주제 : 혁거세의 신비한 탄생과 삶

이러한 정보를 ‘핵심정리’라 하여 기술해 놓았으니, 아마도 혁거세 조에 관해서는 꼭 알아야 할 지식으로 규정할 듯하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 중등교육에서 유포되는 인문학적 지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잘라 말한다면, 이러한 지식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더구나 핵심적인 것으로 기억해야 할 만큼 정당한 것도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전문학 연구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알아야 지식들, 가령, 연대니 갈래니 성격이니 하고 항목화한 것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그것은 위의 그림에서 A이거나 B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 A는 사실에 그쳐 하나의 정보에 불과할 뿐, 지식이라 할 수 없으며, B는 누군가 권위 있는 연구자가 제시한 확정 불가능한 가설을 마치 확정된 진리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아마도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도 그럴 것이다. 자신의 가설을 확정된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눈속임. 이는 바로 학문이 C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데서 온다. C의 영역에서는 A와 B의 가변성으로 인해 수많은 담론이 만들어진다. 아마도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 같은 모습을 떨지도 모른다. 한국의 중등교육 특히 문학 교육에서의 문제점은 사실과 결론만 있을 뿐, 이러한 과정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텍스트와 자신 간의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이론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학문에서나 교육에서 고전문학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담론을 생산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있다.

#### 4. 실용적 인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 연구를 위하여

고전문학 연구가 갖는 문제점은 앞서 말했듯, 국문학 연구 전반이 갖는 문제점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그것이 갖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 문제가 더욱 예각적으로 드러난다. 고전이라는 말이 갖는 시대적인 함의 즉 과거의 것, 지나간 것은 우리에게 현실과 거리가 먼 일종의 낭만적 신화를 생산할 여지를 마련한다. 고전문학 중심의 국문학 연구 전통은 '옛것' '우리 것'에 대한 열망과 향수를 표출하는 낭만적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뭔가 있지만 잘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며, 굳이 설명하자면 논리성을 담보할 수 없어 담론들 간의 소통을 막아버린다. 토론과 대화가 있다고 하지만,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는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이 되기 십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고전문학 연구가 생산한 담론의 소통불가능성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보았듯, 중등학교의 문학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권위적인 정보의 강제적 주입이라는 최악의 교육 방식을 만들어낸다.

고전문학이 사랑 받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낭만적 향수라면, 학문으로서 고전문학 연구에서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인문학은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다. 그것은 학문이 허위의식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 실용적이란 단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인문학 자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문학이 실현하는 가장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실용성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실용성은 인문학의 담론이 실제로 소통되고 또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이 바뀌는 사건들을 통해 생겨난다. 그것은 사회 곳곳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굳이 인문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고전문학을 연

구하는 전문가가 할 일은 그런 담론 생산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것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 여러 의견 $doxa$ 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미시적이고도 치밀한 글쓰기를 실천함으로써 또 다른 글쓰기의 텃밭을 만드는 일, 고전이라는 텍스트를 현재의 상황에 놓고 다시금 해체하고 맥락화하는 일이야말로, 고전문학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담론 생산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경, 「고전문학의 지식체계 형성에 대한 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2」, 『사상계』58, 1958.5. pp.366-381.
- 송무, 「고전과 이념」, 『시학과 언어학』3, 시학과언어학회, 2002.6. pp.16-42.
- 송효섭, 「국문학 연구의 탈형이상학적 지평」, 『배달말』39, 배달말학회, 2006.12. pp.241-261.
- 정병욱, 「고전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83. pp.543-558.
- 조윤제, 『국문학개설』, 탐구당, 1984.
- Lewis, Jeff, *Cultural Studies: The Basics*, Sage Publications, 2002.
- Wellek, René & Warren, Austi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Ltd., 1970.

ABSTRACT

Crisis of Classical Literature and Innovation of Discursive Practice

Song, Hyo-Sup

It's the time to innovate an academic discourse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Until now, academic discourses of classical literature were created either through excessive positivistic under-interpretation or through excessive metaphysical over-interpretation. Those methods which represent a fact-centered perspective and an idea-centered perspective respectively commit the fault that makes one of them reduced to another. It is the reason why academic discourses of classical literature in Korea tend not to be opened, but to be exclusive.

Between a fact and an idea, a language that mediates two opposite sides is needed. It is presented as a theory in academic discourse. Therein diverse interrelations between diverse facts and diverse ideas are created and, also, they create diverse discursive networks. They always open new horizon by innovating themselves. Academic discourse of classical literature today has to participate in such a productive discursive work which creates new meanings incessantly.

**Key Words** Classical Literature, Positivistic Under-interpretation, Metaphysical Over-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